

# 선미촌, 시민이 찾는 문화공간 탈바꿈

###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7개 단체와 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 위한 선미촌 리빙랩 업무 협약

성매매집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는 지난달 30일 '어쩌다 청년' 등 7개 단체와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선미촌 리빙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는 ▲전북여성예술인연대의 '선미촌 여행길에서 만난 복합문화공간 JAWA' ▲소품집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튜디오' ▲어쩌다 청년의 '트인, 꾸민' ▲새털구름 공작소의 '오, 상형문자들 날아오르다' ▲은 투게더의 '동남아 결혼이민자 공유 홈베이킹 카페' ▲노마드의 '유목민(1인가구)를 위한 업사이클링 퍼니처 카페 NOMADE' ▲아즐리맘 공동체 '여성들과 선미촌을 하나로 이어주는 선미촌 '오' 문화체험 공간' 등이다.

이들 7개 단체는 선미촌 내 빈 업소를 활용해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게 된다. 사진 촬영 스튜디오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는 지난달 30일 '어쩌다 청년' 등 7개 단체와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선미촌 리빙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서부터 공예 원데이클래스, 홈베이킹 요리 및 카페, 업사이클링 가구 판매, 선미촌 굿즈 만들기 등을 진행해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성평등전주는 이들 단체의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워크숍 등을 진행해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여성 인권의 무대이자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우는 예술촌, 나아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가 이뤄지던 건물들 사들여 시티가든(마을정원)을 만들었는가 하면 ▲물결서사(예술책방) ▲성평등전주 커먼즈필드(주민협력소통공간) ▲노송너우스박물관(마을사박물관) ▲새활용센터 다시봄 ▲문화예술복합공간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00년대 초반 85곳에 달했던 성매매업소는 현재 7곳으로 줄어들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은 물리적이나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의 참여와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 여성 인권 전문가들의 헌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여성 인권의 상징공간이자 문화예술의 힘을 확인하는 혁신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찾아가는 창밖 치유공연, 만족도 높아

### 전주시, 12호 공연 끝으로 성공적 마무리... 만족도 90% 달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창 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공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첫마중길에서 열린 12호 공연을 끝으로 '창 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치유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창 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치유공연은 시와 11개 예술단체가 의기투합해 병원,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예술치유가 필요한 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공연자는 실외에서, 관객은 건물 내부에서 관람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예술단체들은 이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국악, 판소리 등 전통공연과 뮤지컬, 성악 등 서양음악,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음악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공연을 끝내고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90%에 달하고, 프로그램 지속 희망여부는 '매우 그렇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양곡로 공연과 학교 방문 공연에 대한 요청도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연을 관람한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외부단절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모두 지쳐 있었는데, 이번 예술치유 공연이 병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줬다"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취지의 공연으로 행복을 선사해줬다"고 전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잠시나마 시민들에게 위로와 여유가 전해졌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모·자녀 성 인권 캠프 진행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지난 1일 초등학교와 부모를 대상으로 '올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성 인권 캠프를 열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캠프는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해 양육자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며 건강한 성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성 인권 캠프에서는 ▲생명과 탄생 ▲사춘기, 꽃이 피다 ▲사춘기, 골든벨을 울려라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와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한 양육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녀와 양육자 간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기본 센터장은 "매년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 인권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녀와 양육자가 서로 소통하며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신협, 전통한지 계승·발전 '맞손'

### 세계적 한지산업도시 기반 전주한지마을 조성 협약 체결

전주시와 신협이 한지공방촌 등 전주한지마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한지 계승·발전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다투무 생산 기반 구축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전주시와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한지 계승·발전과 세계적 한지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시와 신협이 민관 파트너십을 토대로 전통한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적인 한지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주 전통한지의 복원 및 후계자 양성 등 계승·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다투무 생산 및 생태문화 체험기반과 한지수요를 확대할 한지산업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게 된다. 특히 지역 내에 한지공방촌을 만드는 등 전주한지마을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한지 계승·발전과 세계적 한지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이어 신협중앙회는 전주한지장인 후계자 양성사업을 위한 소정의 지원금을 후원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와 신협중앙회는 문화재청과 함께 지난해 11월 '4대 궁궐·종묘 전통한지 후원 및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전통한지의 원료인 다투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신협중앙회는 1억원 상당의 전주한지 3만750장을

창호 보수에 후원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통한지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이탈리아 지류전문기관에서 복원 전문 종으로 국제 인증을 받는 등 그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교육기관은 물론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설공단, 공공 체육시설 재개장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3일부터 모든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간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재개장하는 시설은 완산과 덕진 등 양 수영장을 비롯해 빙상경기장,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실내배드민턴장, 승마장, 인공암벽장 등이다.

화산체육관은 현재 완산권역 백신점 종선터로 운영 중이고 인라인롤러경기장은 덕진권역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개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월드컵골프장을 비롯해 완산생활체육공원, 덕진생활체육공원 등 실외 체육시설들은 지난달 26일 개장에 운영

중인 상태다.

다만, 각 시설당 입장 인원은 50% 이내로 제한되며, 수영 강습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샤워실과 사우나실, 체력단련실은 이용이 제한되며, 탈의실도 최소한의 운영된다.

공단은 시설 개방 후에도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백순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체육활동으로 심신을 달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을 재개장하기로 했다"며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만큼 지역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